

제 2 장

교회와 국가 I

1.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

역사적으로 볼 때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는 다음 네 가지의 형태인 ① 교회와 국가의 분리 ② 성직자정치(Παποκαισαρισμός) 또는 교황정치(Ἱερακρατία) ③교황 만능주의에 반발하여 14세기 이후에 서유럽에서 우세 하였던 정치형태인 국가의 교회지배제도(Καισαροπαπισμός) ④ 상호 협 조 관계(Συναλληλία)로 크게 분류된다.

교회와 국가가 분리되었다 함은, 국가가 교회에 대해 무관심을 보여 내 정에 전혀 개입하지 않거나, 또한 교회에 대해 적개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 에 교회를 박해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의 예로서 초기 그리스도교 시대인 기원 후 3세기 동안의 그리스도교 박해와, 현대에 있어서는 공산주의 국가 를 들 수 있다. 교황정치란 11세기에서 14세기에 걸쳐 서유럽에서 교회가

국가보다 우세하였던 정치형태로서, 교황에게 국가의 지배권이 있음을 의미한다. 당시에는 교황이 각국의 정치 지도자를 임명하고 파면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반대로 Καισαροπαπισμός에서는 교회가 국가의 지배를 받는 것을 뜻한다. 한편 상호협조관계란 교회와 국가가 둘 다 하느님에 의해 설립된 권위로서 서로 동등한 권한을 가지며, 같은 테두리 안에서 상호 독립적으로 공존하는 상태를 말한다. 다시 말해서 교회와 국가가 서로 다른 체제하에서 다스려지며, 백성의 이익을 위해 서로 협조한다.

그런데 위의 네 가지 관계 중에서 교회와 국가의 분리란 사실상 용납될 수 없는 관계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분명해 진다. 첫째로,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동시에 국가의 법의 지배를 받는 시민들이므로, 교회가 국가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어떤 조직을 구성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둘째로, 교회가 국가로부터 멀리 떨어져 전혀 접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회가 국가를 무시하는 것도 불가능하며, 국가가 교회를 무시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교황정치란 세속정치권을 교회의 권한 하에 종속시키는 정치형태로서 교회권만을 하느님에게서 인정받는 유일한 권한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정치형태는 르네상스 이전 서방의 가톨릭에서 유행하였던 것인데, 오늘날의 사회적 입장에서 보면 용납할 수 없는 관계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제도하에서는 로마의 교황이 지상에서의 그리스도의 교회를 대변하는 유일한 대표자일 뿐만 아니라, 하느님께서 임명하신 세속적인 지도자로 되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Καισαροπαπισμός도 교회를 국가에 종속시키려 하므로 교회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적으로, 위의 네 가지 관계 중에서 성경의 가르침과 교회의 전통에 합당한, 유일한 관계는 상호협조관계로서, 교회는 비잔틴 제국의 통치기간 동안 국가와 상호협조관계를 유지해 왔다.

2. 국가와 그리스도교회

기원 후 3세기 동안은 교회와 국가(로마제국)가 서로 완전 분리된 관계를 유지하던 시기였다. 다시 말해서 그 기간 동안에 국가는 교회에 무관심을 보이거나 아니면 교회에 대해 적개심을 가지고 교회를 박해하였다. 그러나 교회와 국가의 이러한 관계는 콘스탄티노스 대제가 즉위함으로써 완전분리관계에서 상호협조관계로의 변화를 맞게 되었다. 콘스탄티노스 대제는 313년 메디올라노칙령(밀라노칙령)을 발표함으로써 그리스도교를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종교의 완전자유를 인정하였다. 또한 321년에는 일요일을 기도하는 날로 정하였다. 농부들만은 밭일을 버려둘 수가 없었으므로 일요일에도 씨를 뿌리고 포도나무를 심는 일 등이 허락되었다.

콘스탄티노스 대제는 공동통치자였던 리키니오스를 제거하고 혼자서 제국의 왕이 된 후에 두 개의 법령을 발표하여 그리스도교를 옹호함으로써 로마제국이 점차로 그리스도교화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콘스탄티노스 대제의 후원을 힘입은 교회는 먼저 로마제국에 그리스도교를 전파하는데 힘썼으며, 다음으로 이방인들에게도 그리스도교를 전파하였다. 콘스탄티노스 대제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어 그들이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그의 공적을 인정하여 후에 그를 성인으로 선포하였다.